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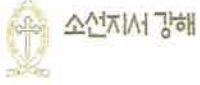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그 날에

스가랴 14:1 - 11

스가랴 14장은 해석이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스가랴서를 라틴어와 독일어로 주석하는 가운데 라틴어판에서는 14장을 주석하지 않았고, 독일어판에서는 스가랴 14장에 대해서 선지자가 무엇을 말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주석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의 메시지는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닌 텔아비브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매우 난해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독립된 국가로 선언될 때까지 나온 주석책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오니즘이 팽배하게 일어나면서 1948년 이후로 흘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족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2절).

또한 하나님은 유대와 예루살렘이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4가지로 어린 양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 1. 빛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7절).

빛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끊어지게 됩니다. 생명은 빛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빛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계21:23).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들어가 살게 될 천국에는 어린 양의 빛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 빛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 2. 생수가 솟아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8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들이 들어가 살게 될 천국에는 어린 양의 빛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물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4절 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성취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겔 47: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계 22:1).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 어린 양 보좌는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이시고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 3. 왕을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9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고전 15:24,27).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교회의, 국가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왕 중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 4. 도성을 세우신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계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10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사 65:17-19).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새 예루살렘, 신천지지의 모습을 비전으로 받았습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 예루살렘 곧 시온에서부터 구원의 물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11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또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 곳에 갈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성령론을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

## 새벽 5시 교회에서 만납시다

11월22일(월)-27일(토)까지 1주일간

2004년 사명자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사명자대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령론을 주제로 내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성령 충만하여 중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50일간 모든 연속기도의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기도로 자신이 처한 처소에서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왔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사명자들이 더욱 철저한 회개와 말씀

과 기도로 무장하기 위하여 모이게 된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는 한 주간 동안에는 새벽기도회가 30분 당겨져 오전 5시부터 시작되며 강사로는 이종윤 목사가 서게 된다.

모든 성도들은 매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 성령의 사랑이 되도록 하자.

#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번역 확정되다

12월3일 한기총 · 교회협의회 공동발표키로

하나님께 바른 기도와 바른 신앙고백을 추구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번역을 헌의한 지 3년만에 한국교회의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협의회(NCC)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수차례 연구모임을 가진 결과 드디어 재번역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두 기관의 전문 연구위원회(위원장 이종윤)는 오는 12월3일(금) 우리교회에서 합동위원회 모임을 갖고 재번역안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축하하기로 하였다. 재번역안

은 양기관의 실행위원회를 거쳐 산하 회원교단에 통보하고 이를 내년 각 교단 총회에서 허락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처음부터 주도한 서울교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한국 교회사에 찍는 작업에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다.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 태어난 서울교회 설립 13주년을 한 주 앞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한다.

## 로잔대회 전도(선교) 전략 보고대회 개최

25일(목) 오전 7시

지난 9월 29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04 로잔 Forum에서 얻은 전도(선교)전략 보고대회를 11월25일(목)오전 7시 우리교회에서 갖는다. 이를 위해 로잔위원들과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 11월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3독> 김대호 장로(8교구) 안연심 권사(9교구) 김은애 권사(9교구)

<2독>

이인숙 권사(1교구) 이남복 권사(5교구) 이윤영 권사(5교구) 강애자 권사(8교구) 강희자 권사(2교구) 김인식 권사(8교구) 김현주 권사(8교구)

<1독>

박상희 집사(1교구) 정인주 집사(1교구) 양춘경 집사(1교구) 유근중 집사(2교구) 남옥진 집사(5교구) 박태성 성도(5교구) 윤용근 집사(5교구) 최근자 권사(5교구) 장양일 집사(6교구) 이성애 권사(9교구) 신혜영 성도(9교구) 김양숙 집사(11교구) 김영우 집사(11교구) 김인숙 권사(13교구) 한상준 집사(11교구) 김경래 집사(13교구) 김동진 집사(13교구) 김미경 집사(13교구) 박성희 집사(13교구) 안경옥 집사(13교구) 조동완 집사(13교구) 이상 31명

# 2004 사명자 대회 연속기도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증인"

(11월 19일 현재)

일시	요일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21	주일	주일예배																							
22	월	왕경래 이양철 김미향 김규태 박미혜	왕경래 이양철 김미향 최치순 백예숙	김세재 최치순 백예숙	김세재 이연주 이형수	김금준 이연주 이남성 김숙자	김민 박우옥 장효옥 이승희	이안순 박우옥 장효옥 이승희	이순희 이부자 송옥혜	김양숙 조원섭 김혜련	박이선 송희숙 고경순	김종자 김정의	이명희	김선미	나옥녀 안영덕	서희숙 주경자 신현이	임상현 신선주	김건중	유영중	김대용 조영현	한근수	한근수 서경애	한근수	한근수	한근수
23	화	하영수 최양봉 이양철 김미향	하영수 최양봉 이양철 김미향	이관규 박춘자	이관규 박춘자 이형수	박춘자 이남성	김현숙	김현숙	이부자 송옥혜	황경신	고경순	엄금순 박희희	이민자 김영희 조정옥	남옥진 윤용근	김정희 이승래 장낙희	김수옥 이윤영	심상필 이윤영 신선주	최용걸 최일준	최용걸 이영옥 윤숙희 서영세 김계순 정정숙	곽속 이영옥 윤숙희 서영세 김계순 정정숙	한근수 장두현	서경애 장두현	김규태 박미혜 장두현		
24	수	노승성 이양철 김미향 최낙준	노승성 이양철 김미향 한광마	이복규 한광마	이복규 차도훈 이형수	이남성 김명심 석상화	김진희 김인화	이남복 최현인 이명순	이부자 송옥혜 정진영 송미라 최족희 김우숙	한금희 박정순 이상호 정미연	수요 1부	김규희 방승희 1-3	정애신 신장순 한금희 조정옥	한성옥 김인순 심재을	권진문 진경옥 신현이 오영자 심희숙	심희숙 공진문 진경옥 신현이 오영자	이상호 김용래 왕경희 김혜숙	김재성 한명순	수요 2부	윤윤식 김규태 박미혜	서경익 김광룡 윤윤식	양춘경 이인숙 서경애	정은순 노명자		
25	목	박두호 박영자 임우근 이양철 김미향	박두호 장인주 김재에 이양철 김미향	박두호 최영진 강윤숙	박두호 임승자 하용택 황정임 하영숙	이남성 홍일성 손영호	여연숙 김명심 최무순 주정희	김찬진 김수호 이지혁	최인 박성근 김준호 이화진 이부자 송옥혜	이동선 강애자 박영숙	강희자 송인순 최난수 한명선	여연진 유병옥 최금자 흥보 기도팀	한준홍 박명자 박두신 김중자	김정운 주의현 김인순 정정희	이영희 신정순 안명덕	최양자 신정순	김순자 신선주	박재숙 조성업	윤봉준 김명화	윤봉준 김명화	곽속 이부자 송옥혜	서경애	김규태 박미혜		
26	금	민순구 이양철 김미향 유영준 김은미	민순구 이양철 김미향	임훈규 최치순 백예숙	임훈규 김금준 이연주 이형수	이남성 김금준 이연주 김숙자	이순희	이순희	이순희 이부자 송옥혜	유신 이부자 송옥혜	박재숙 고경순	김용옥	김용옥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이순영 김예환 신선주	이순영 왕경래 김정희 김예환	이강인 허숙 전향식	서춘식 이경희 임명숙 한상준	김요기도	이희주 이은옥 서경애 김규태 박미혜			
27	토	이완형 김영식 이양철 김미향 서경애	이완형 김영식 서경애	윤찬오 정호자 서경애	윤찬오 정호자 서경애	서경애 정호자 이남성	13교구	13교구	이부자 송옥혜 김우숙 최족희 김현자 안난숙	이민화	전배호 고경순	하숙	예완식 송금자	주경자 김숙자	12교구	심재을 12교구	12교구	12교구	12교구	12교구 서춘식	이부자	서경애	김규태 박미혜		



만민에게 전도 - 초등부

# 초등부도 사명자 대회 열기로...

김찬진 권사(초등부 부림)

2004 사명자 대회 기간을 통하여 초등부의 32명 어린이들이 76명(다음 주에도 계속됨)의 태신자를 적어서 내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 우리초등부 어린이들! 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또 지난 10월17일 주일에는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대치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했는데 "전도지를 더 주세요", "내가 이거 다 나누어 주어야지" 하며 많은 어린이들이 전도에 열을 내어 준비한 800여 매의 순례자가 금세 동이 났다.

지난 3월부터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선생님들 따라다니다니 저들도 어느새 전도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다.

요즈음 초등부는 수요일은 대치초등학교, 토요일은 대곡초등학교 앞에서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수요일 오후 삼성아파트 까치공원과 토요일 오후 은마아파트 십자공원에서 찬양, 율동 성구암송, 성경 이야기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전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교 이야기도 함께 할 계획이다. 하나님 사랑! 교회사랑!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많은 우리 초등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 전도하고, 전도하기 위해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아이들이 올 수 없고, 가르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 지난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전도 교육이 있었는데 이때 전도 하는 것이 하늘나라 STAR 되는 길이라는 것도 배웠기 때문인지 요즘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전도의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 서울교회에 어린이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어른 한 분을 전도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어린이 한 명을 전도하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순수하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은 심고 아블로는 물주되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초등부 교사와 어린이들은 부지런히 전도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명자의 기도

# 이 땅 고쳐 주소서!

나기태 집사(12교구)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피 주소서.

이나라. 이민족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과 악행이 난무하며, 죄악의 그림자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주님을 모르고, 위정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에만 급급해, 이 나라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한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나라의 위기를 위기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결국은 모든 것이 신앙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땅에 묻힌 나라이고, 이제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눈물로써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혜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은 더욱 눈물로 간구하게 하시옵고, 믿지 않는 이들은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온 나라가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로 가득차게 하옵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릴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서울교회에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소, 그 모든 사명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주시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설립 13주년 및 추수감사절 찬양예배

#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최동규 (가브리엘찬양대 지휘자)



아름다운 예배, 영적인 예배를 위하여 음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감사할 제목이지만, 특히 음악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번에 저희 가브리엘찬양대가 준비하여 드릴 찬양은 어느 작곡가의 한 작품이 아닌 여러 곡을 일정한 주제에 따라 구성한 형태입니다.

"감사의 노래, 영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작은 4개의 주제에 따라 "여호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교회의 찬송"에는 전통엔트임 '온 땅이여 주님께 환성 올려라'와 회중과 함께 부르는 '성 삼위 찬양'이 드러집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구원 받은 자들의 기쁨의 노래"로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스타일의 '사랑의 주 예수'와 '하박국의 노래'가 불려지는데 가브리엘대원들도 매우 좋아하는 은혜로운 찬양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쁜 날'과 '예수님이 좋아 좋아'인데 이 두곡은 전통적인 우리가락의 우리작곡가의 곡이며 장구반주가 곁들여져 흥겨움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창립과 감사절의 노래로 걸맞는 더없이 좋은 곡들입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연주회가 아닌 회중과 함께 찬양하는 형태인 HYMN CONCERTATO를 포함하고 있는 점인데 마지막 곡은 온 회중과 찬양대가 오르간과 브라스앙상블과 함께 교회의 머리되신 주께 감사하는 찬송 '교회의 참된 터(242장)'를 부르게 됩니다.

가브리엘찬양대는 1부예배를 담당하는 특공대정신으로 무장한 팀입니다. 더욱 삶과 예배가 하나된 신행일치의 찬양대가 되어 온 교회와 함께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 감사의 노래, 영광의 노래

가브리엘 찬양대  
교회설립과 추수를 감사하는 찬양으로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박두호 장로)의 교회설립 13주년 기념과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주제별로 4부, 총 7곡으로 구성된 이번 감사 찬양에는 회중이 함께 하는 찬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트럼펫과 장구가 함께 연주한다. 회중은 프로그램을 참고하며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함께 찬양을 하면 된다.

## 홈커밍데이 열린다

11월27일(토) 오후5시 본당에서

서울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수고의 눈물과 땀을 흘린 옛 가족과 가족 중 짝민음으로 계신 분 그리고 가족 중 타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11월27일(토) 오후 5시, 2004 사명자대회 마지막 날에 열린다.

교회는 홈커밍데이에 초청하는 분들께 이미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예배 후 서울교회 소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2004 사명자 대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 광야의 소리

# 성수주일 유감



전기집 장로(5교구)

어떤 시골 장로님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옷을 다리고 신발 닦고 헌금할 돈을 뺏뺏하게 다리고... 주일이 무척 설레고 기다려지는 모습이다.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 1시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한다. 그리고 은종일 교회를 섬기느라고 바쁘다. 오락은 말할 것 없고 TV나 신문도 없고 또한 아무리 농사일이 바쁘더라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출타주일지라도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주일성수를 했다.

요즘 주일 성수문제가 점점 느슨해져 가고 있다. 주 5일 근무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원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금요일예배를 만들어 토요일과 주일에 놀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1부 예배 일찍 드리고 골프장으로 자녀들은 학원으로...

허물어져가는 주일성수 자세를 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먼저,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아이들을 학교공부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대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자. 주일 성수 바로하고 철저한 신앙 속에 자라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둘째, 주일에 매배하는 일은 어떤일이 있어도 삼가자. 일할 수 있는 옛새가 있는데 하필이면 거룩한 주일에 사고 판다는 것은 준비 없이 소홀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가정에선 컴퓨터와 TV시청을 최소화 하고 성경공부를 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주일근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성경은 옛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주일은 쉬라고 했으니 옛새 동안은 남보다 배로 힘써 일하고 주일은 주의 날이므로 쉬겠다고 간청하면 이를 막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주일성수가 어렵다면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큰 결단도 서슴지 않고 주님 편에 서야한다.

주일 성수는 이런 저런 이론과 이유를 나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감사하는 마음과 충직한 방법대로 지킴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점점 주일과 평일의 경계가 없어져가고 주일성수의 개념이 희미해져 가는 요즘 초창기 우리 선배들의 철저한 주일 성수 모습이 그리워져 간다.

서울성경대학을 마치고...

#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백영희 권사(11교구)



새벽기도 후 사무엘 상 성경공부는 노년이라는 핑계 삼아 나태해 지려던 삶 가운데, 보석처럼 번쩍이는 귀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자비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마음에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내내 저는 하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주신 하나님, 선물로 주신 사무엘을 통해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무섭게 징벌 받은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

의 모습을 보며 충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순종을 다짐하며 기도케 하였고, 기름 부은 받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뜻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어떠한 환란 핍박이 와도 믿고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피할 바위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며 그의 이룬 역사를 보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 서울교회와 이종운 목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간 수고하신 이종운 목사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 영어예배부 교사 찬양대원 모집

21일(주), 28일(주) 오후 12시45분 403호실로

2005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영어예배부에서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성도들을 모집한다.

영어예배부에서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늘 오후 12시 45분, 그리고 다음 주일(28일) 403호실로 가면된다.

Anyone who wishes to join English worship service as a Bible study group leader and a choir member, please come to room 403 at 12:45 pm on Sunday, November 21 and 28.

## 헝시바 중창단 단원모집

서울교회 청년부 회원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서울 헝시바 남성중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남자 성도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관심 있는 성도들은 장상국 대표단원 (016-784-8903) 에게 연락 주시거나, 청년부 홈페이지 (www.seoulchurch.or.kr/sky) 를 방문하여 글을 남겨 주시기 바란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3일(화)서울여대이사회에 참석, 25일(목)로잔 포럼 보고대회, 비전2020운동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류기정 성도(1교구) (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회회 회장 피선
- 득남: 나소연 (나중영집사, 이은희 권사 장녀)
- 이사: 권오철 박영애 성도 가정(12교구) 용인시 죽전동 꽃매마을 현대 홈타운 4차4단지 555-1002 T.031-897-0645
- 주간식당 봉사: 권사회(11월21일) 빌립남선교회(11월28일)

## 북한인권회복과 복음화를 위한 금요일특별기도회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 6시 607호에서

북한인권회복과 복음화를 위한 금요일특별기도회가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탈북성도들과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탈북성도들이 11월 5일부터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607호에서 금요일특별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김정일 독재정권의 착취에 시달리며 무참히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출발한 이번 금요일특별기도회는 암흑의 땅 복음의 불모지인 북한사회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남한사회에 온 탈북출신의 성도들이 직접 그들의 고향과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중국과 제3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 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4-주일 저녁 9시5분
라디오	· HLYK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4 사명자대회 특별 새벽기도 참여할 수 있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피택집사·권사들의 영성과 임직식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